

2023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고대의료원지부 정기대의원회



고대의료원지부 정기대의원회가 지난 3월 15일(화)~16일(수) 양일간에 걸쳐 충무로에 위치한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다. 또한, 2023년 임기를 시작하는 대의원이 대거 참여하게 되어 교육과 토론을 함께 진행했다.

대의원 교육은 보건의료노조 방기원 교육위원장을 초빙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길, 대의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토론을 통해 올 한해 대의원으로서 나와야 할 약속을 3가지를 정하고 연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에 적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내용으로 '대의원으로 가

입과 탈퇴관리에 신경쓰겠다.', '올해 부서원들이 파업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열의에 찬 결심들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는 의료인력법(9.2 노동조합의) 이행을 위해 총파업 나서야!

교육 토론이 마무리된 뒤 본회의에서 노재옥 지부장은 대회사로 통해 "정권이 바뀌지 얼마 안되었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엄중한 시기이다. 정부는 노동법 개혁으로 69시간 제도를 얘기했는데 이는 노동조건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국민들의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윤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세금은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시스템으로 가려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조합 탄압이 강하게 시작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탄압과 조직의 회계관련 투명성을 말미암아 강제하려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금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격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을 선언했다. 산별총파업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이 이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총파업의 의지를 밝혔다.

적정한 인력구조, 수평적 조직문화, 공정한 인사제도의 대전환!

고대의료원지부는 고대의료원지부는 23년 큰 목표로 ▲노동의 질 개선 ▲조직문화 개선 ▲인사제도 개선 등 3가지 방향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으로 산별 총파업으로 노동조건 및 인력충원 개선을 내걸었으며, 노사 상호존중 캠페인,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진행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어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논의했으며 이의 없이 승인됐다. 또 다른 안건으로 현재 집행부 수석부지부장의 결원으로 인한 임원 보궐선거를 상정했으며 안암병원 응급실 송은옥 간호사가 수석부지부장에 당선됐다.

■ 보고사항

1. 활동보고 2. 소정근로시간(209시간) 2차 소송 3. 2023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 4. 보건의료노조 규정 개정안

■ 논의 안건

안건 1. 2022년 총괄사업계획 및 각 부 사업평가, 회계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 건

안건 2. 2023년 총괄사업계획(안) 및 각 부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의 건

안건 3. 2023년 투쟁기금 사용 심의 건(투쟁기금 사용을 통한 조합원 추석 선물 지급의 건)

▶ 3가지 안건 모두 이의 없이 승인됨.

안건 4. 임원 선출 건(후보 : 안암병원 송은옥 회계감사)

약력 : 2010~2012년 산별 7대 사무장, 2013~2014년 산별 8대 수석부지부장, 2020~2023년 산별 12대 회계감사

▶ 투표결과 : 당선(찬성 : 37표, 반대 : 2표)

구로병원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구로병원 이음회의실에서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진행됐다.

사측 위원으로 대표위원인 정희진 병원장과 윤순정 경영관리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참석했고, 노측 위원으로 대표위원인 노재욱 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사전회의를 통해 정리된 안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승인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을 포함하여 약 8가지의 안건을 논의했다.

노사 대표위원 인사말을 통해 노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니 현

안이 해결되고 의사소통 잘된다.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산안위, 적극적인 문제해결 위한 사전회의 진행

조함과 병원은 산안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 전 사전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더욱 효율적인 산안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원 안전에 방에 노사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더욱더 협력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산안위의 발전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건의료사업장 중 으뜸이 되길 바란다.

안건	논의 결과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침상커튼 탈부착 전문 인력 배치 요청 건】 탈부착 업무의 위험성을 확인해 직원이 하던 업무를 전문 업체에 의뢰했으며 ICU, 무균병동 커튼 탈부착 시 외부 전문 인력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개선형 발판을 지급함.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건】 최재원 조직부장으로 선임함.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으며 선임 완료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 건】 원외에서 원내로 전화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언/폭행 금지]에 대한 안내멘트가 2월 20일부터 전체 부서로 적용됨.
	【영양팀 안전사고 예방기술 컨설팅 관련 건】 영양팀 안전사고 예방기술 컨설팅의 결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이소프로필 알코올 및 질산이 포함된 세제로 대체 작업 완료됨.
	【환경관리실 비상벨 설치 건】 1인 근무의 위험성을 노사가 공감했으나 2명이 업무를 하기에는 양이 부족해 근무 중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를 진행하기로 해 해당부서와 비상벨 위치와 종류를 협의중에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건】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전회의의 형식으로도 안건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실무회의를 유지하기로 함.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건】 지난 4/4분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노사가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건】 최근 강화된 산재법에 맞도록 원내 규정을 검토 수정하고자 함.

상근 근무자 반차 시행

구분	근로시간
오전 반차 시	13:30-17:30
오후 반차 시	08:30-12:30

2023년 4월 1일부터 고대의료원에 반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으로 기존 반차를 사용하던 부서의 관리 효율성 향상과 사용이 가능한 상근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회보에는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노사합의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행하기로 했다.